

선은 부정의 변증법을 방법적 도구로 한다. 물론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욕망과 두려움의 혼적없이 '있는 그대로(진여)' 파악하는 것이다. 선의 구도는 그렇다 면 심검기 이룰데 없다. 선이 복잡하고 황당해보이는 이유를 크게 둘로 잡을 수 있겠다 싶다. 하나는 오랜 무명의 혼수에 의해 '있는 그대로'가 아주 심하게 왜곡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실상은 워낙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 다루기가 아주 미끄럽다. 또 하나는 이러한 방법적 부정을 거쳐 '있는 그대로'를 구현하는 양상이 선출귀몰의 다기한 활법(活潑)을 연출하는데 있다.

선의 거장들은 이 두 문제를 다룸에 있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그 가운데 위산과 양산에 의해 진직된 증상은 잔잔하면서 속깊은 강의 흐름을 갖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百丈 720~814)의 청규(淸規)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선은 이렇듯 엄정한 규율과 지침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고되었고 있었다. 백장은 늘어난 신도들을 위해 대위산에 본원을 세우고자 했다. 백장은 영우(靈祐)를 영두에 두고 있었는데 고침인 화림이 이를 계기했다. 백장은 공개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시험문제는 물통이었

### 한형조 무문관 탐방

41 위산의 불씨

어디에 있는가. 선사들이 공통으로 일러주는 바로는 거기에 이르는 확인된 지도는 없다. 그것은 지적 개념의 작업으로 도달될 수 없는, 즉 '문이 없는' 내적 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당하고 파격적인 수련방식이 선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비상한 용기와 준비 없이는 일상적 사고습관의 끈질긴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수 없다는 은산철벽의 절망이 선장들의 노파심을 촉구했다.

그 노파심의 표출양상은 다양하다. 논리적 언어를 통해 설득하기도 하고 시작 비유를 통해 암시하기도 한다. 앞의 사구백비는 전자의 경우이고 무문의 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쩌거나 온건한 측이다. 과격한 스타일은 언어를 던져두고 행동으로 들어간다. 먹살을 드잡기도 하고 몽둥이나 고향으로 내려치기도 한다. 위산의 증상은 온건하고 치밀하다. 부드러운 표현과 화려한 거래 속에서 선의 핵심을 짚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 예화를 두가지만 소개한다.

여름 안개가 끝난 후 양산은 스승 위산을 찾았다. "한 여름 내내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땀을 흘려 줄 갈아서 수수씨를 뿌렸습네다." "여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습니까?" "스승님께서서 무얼 하고 지



그림: 이준석

### 영혼의 불씨는 어디 있을까

"일상적 습관 벗어나 있는 그대로 보라"

다. "이것은 물통이 아니다. 무어라 부르겠는가." 화림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말쑤이라 부르겠습니까." 백장이 이번에는 영우를 돌아보았다. 영우는 물통을 조용히 열어 놓고 방을 나섰다. 이 답안이 백장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리하여 영우는 일천오백의 대중을 거느린 대위산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위산 영우라 불린다. 이 산은 원래 함준하여 인적이 끊긴 곳이었다. 처음 위산의 영우는 원숭이때를 벗삼아 도토리야 밤을 주워 살았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물러와 절을 지어주었다. 대장군 이경양(李景讓)이 황제에게 아뢰어 동경사(同慶寺)라 했고 정승인 배휴(裴休)가 찾아와 현묘한 진리를 물었다. 이로부터 천하의 선객들이 이리로 몰려들었다.

영우는 복주 사람으로 15세에 부모를 떠나 출가하여 처음 대소승의 법을 닦았다 한다. 23세에 강서(江西)의 백장을 만났는데 백장은 첫눈에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어느 겨울 백장과 영우가 화로를 마주하고 둘러앉았다. "어디 불씨가 없는지 찾아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백장은 몸소 재를 뒤져서 조그만 불씨를 찾아냈다. "이건 불씨가 아닌가?" 영우는 이 말에 뒤통수를 맞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불성, 영혼의 불씨는

내셨습니까." "나야 하루 한끼 먹고 밤에는 자지." 양산은 이렇게 응답했다. "스승님도 여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습니까?" 하루는 위산이 설악 낮잠이 들었다. 양산의 방문소리 소리에 깬지만 내색을 않고 밖으로 돌아누웠다. "저는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어찌서 낮잠 사람 대하듯 격식을 차리십니까." 잠이 그제서야 깬 것처럼 위산이 몸을 뒤척였다. 양산이 방을 나가려 하자 위산이 불러세웠다. "막 꿈을 꾸고 있던 참이네. 무슨 꿈인지 들어볼래나." 양산은 자세히 들었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위산이 입을 열다 말고 이렇게 주문했다. "자네가 어디 한번 맞추어 보게나." 양산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물담은 세수대야에 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세수를 마친 위산이 자리를 고쳐앉은 관인대 양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위산이 말했다. "우리 지금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만저만한 기적이 아니야." "제가 비록 저 아래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세" 하고 자리를 고쳐잡았다. 양산은 나가서 차를 한잔 받쳐주고 왔다. 위산은 과안했다. "너희들의 지혜와 신통은 사리불(舍利弗 Sariputra)과 목련(目連 Maudgalyayana)을 넘어서었다." (한글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효나 숫자를 나타낼 때 백, 천, 만, 억과 같은 단위로서 수의 양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아승기(Asemkiya) 또는 갠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단위로서 숫자의 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승기나 갠지즈강의 모래수는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효의 숫자단위이기 때문에 무수, 무량대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처럼 흔히 쓰이는 숫자로 '팔만사천'이라는 단위가 있다. 팔만사천 법문, 팔만사천

### 팔만사천법수

번뇌, 팔만사천 국토, 팔만사천 다리니, 팔만사천 불보살, 팔만사천 방편, 팔만사천 중생, 팔만사천 겁, 팔만사천 지옥, 팔만사천 신장, 팔만사천 상호, 팔만사천 사가라수, 팔만사천 청정보통, 팔만사천 모타라비, 팔만사천 세, 팔만사천 마군, 팔만사천 광명, 팔만사천 삼매, 팔만사천 유순 등에 나오는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있는 뚜렷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병이 많으면 그만큼 의사가 많고 약도 많고 처방도 많다. 중생의 번뇌가 한량없으므로 부처도 많고 법문도 많고 방편도 많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팔만사천으로 표현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효의 불교용어들은 모두 현재 무명속에서

### 法數로 배우는 불교

<51>골



◇허허한 함은 스님의 화엄법 계도.

### 헤아릴수 없이 많은 법수 상징 數 이전 본분자리 찾는게 참뜻

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것이다. 진실한 부처님에게는 몸도 없고 말할 법도 없다고 한다. 다만 중생을 위해서 자비로 몸과 법을 나타냈을 뿐이다. 일체의 분별을 떠난 것이 부처님의 세계이건만 집집 중생들의 번뇌의 병, 병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이고 법을 말함으로써 수많은 용어도, 숫자도 나오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데 있어 부처님 자신전에 서서 법을 설하시지 않고 항상 중생 편에

서서 법을 설하셨다. 그러므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 그 법문이 나 자신을 향해 설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팔만사천 뒤에 나오는 어떠한 용어도 그것은 모두 부처님이 중생으로 처해있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세우고 계신 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제호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된다. 짧은 식견과 부족한 필력으로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

을 송수스럽게 생각한다. 법수용어를 설명함에 있어 필자는 기존 자료나 문헌에 근거하지 않고 독자 자신의 신심과 수행에 초점을 두고 이해시키려 했다. 그러다보니 어느 독자로부터 어느 주제는 법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는 힐책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판단에 미루어두고 싶다. <대명법수>라는 책에 나오는 것만이 법수라거나, 법의 뜻이 안 들어 있으므로 법수가 될 수 없다거나, 49세를 칠칠재로 써야만 된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 틀에 박힌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을 온 삼장을 포함해서 정법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불교의 숫자는 법수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어떤 숫자가 되었건 그 숫자 속에는 반드시 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수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대명법수>라는 문헌에 들어있는 1천6백여 단어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들어 있는 불교용어는 법수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 의미에서 법수 또는 팔만사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의미 없고 뜻이 없는 말과 숫자는 하시지도 쓰시지도 않으셨다.

말을 통해서 말이 끊어진 경지에 들고 숫자를 의지해서 숫자로 갈라지기 이전의 본분자리를 찾는 것이 불교의 원래 취지이다.

그동안 부족한 내용 애독해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불교와 수학

44

중과 0

김용운

소승불교가 자신만의 대각을 강조하는데 비해 대승불교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이타행(利他行)을 내세운 보살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맨 먼저 '모두 공이다(一切皆空)'가 반야경에 등장한다. 이때 공(空)의 생각이 철학화된다. 그것을 대칭한 사람은 용수(龍樹)보살이며 그의 저서 <중론(中論)>이 잘 알려져 있다.

'연기'를 공의 입장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공(空)사상이 불교를 인도종교에서 세계종교로 비약시켰다. 그것은 마치 수학에 있어서의 '영(0)'의 개념이 인도에서 발견되어 아라비아를 통해 서구에 전해짐으로써 수학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과 같다. 고대 수학은 문명이 있는 곳에서 발달되었다.

중국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万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이집트, 회람, 인도... 각 문명권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었다. 이것이 영(0)이 발견됨으로써 1, 2, 3...8, 9, 0 열 개의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숫자로 통일되어 수학은 저마다의 문명권을 벗어나 세계수학으로 비약하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같은 인도에서 나온 철학으로 공(空)의 사상과 수학의 영(零)이 함께 세계로 비약한 것이다.

공과 영의 공통점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것, 즉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는 철학적인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2, 3...과

벗어나 크게 발전해 갔다. 1과 2사이에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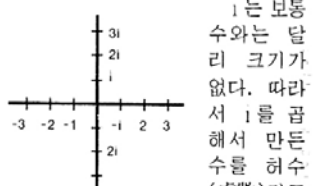
즉 1/2, 1/3...과 같은 분수가 나오고 복잡한 원주를 π와 같은 수도 나온 것이다. 0이 있음으로써 1, 2, 3...에 대해서 반대되는 -1, -2, -3...과 같은 음수도 나오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필요한 수를 만들어 냈다. 지금 까지 설명한 수는 실수로서 모두가 수직선상에 나열되어 있다.

불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 동시에 보

될 것이다.

곧 복소수 세계의 등장이다. 복소수는 √-1을 단위로 하며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수이다. 즉 (√-1)<sup>2</sup>=-1, 이때 √-1=i로 표시한다. 이것은 실수선상에 있지 않는 수이다. 그래서 √-1을 단위로 하는 또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선이 필요해졌다.

수직선과 0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또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선과 합해서 생긴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미부여 인도서 나와 세계적으로 발전

같은 것은 한 개의 물결이, 두 개의 사과, 세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개념이다. 몇 개로 구성된 물체의 모임에서 수를 추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명권에 따라서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수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뜻에서 1, 2, 3...과 같이 물건의 갯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수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없는 것이 있다'는 의지적인 순수사유를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후 수의 세계는 자연수의 틀을

이치 않지만 현실생활을 지배하는 마음 세계를 중시한다.

일단 공(空)의 철학은 중심에 두게 되면 그것에서 파생하는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하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 서게 된다. 유식론(唯識論), 구사론(俱舍論) 등 마음의 세계, 인식의 방법을 정밀하게 파헤친 불교 철학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학에서도 0의 발견은 그후 보이지 않는 수를 확장하는 계기가

1은 보통 수와는 달리 크기가 없다. 따라서 1을 곱해서 만든 수를 허수(虛數)라고 한다. 실수에 대한 가짜의 수라는 뜻을 품고 있다.

상식적으로 2i와 3i를 보면 3i가 큰 것 같은데 허수 세계에서는 비교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며 요즘 수학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세계의 일이 물리적인 양과는 달리 비교할 수 없으나 마음가짐이 현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도 같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특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역운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출세를안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 명당자리 氣요법

· 제조원: 이명무 오랑테스트 연구회  
· 판매원: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문: ☎ 052) 223-0491~2  
☎ 052)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부려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치성염, 불면 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역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 명당자리 요법이란?

-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랑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 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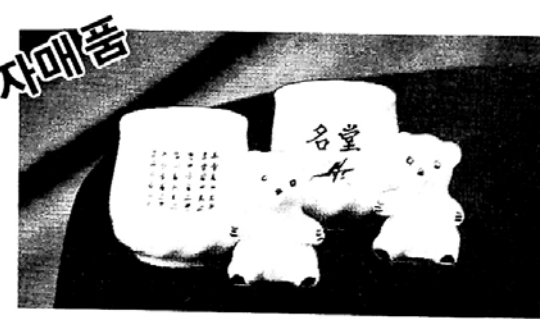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 유지요법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운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역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목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찜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공판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시중 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랑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랄.



### ★ 명당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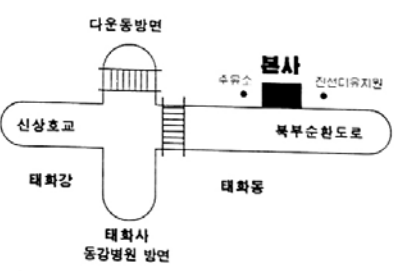
- ① 명당컵을 TV위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정과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회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활력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 ●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리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입니다.

- '불황에도 부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부자에 대한 위협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 불가비법 원법(圓法) 접수함.